

메디톡신 빈자리, 종근당 출사표... 보톡스 ‘지각변동’

메디톡신 허가취소 청문회 연기 종근당 지난 1일 원더톡스 출시 해외시장 선점 위한 경쟁 심화

보톡스(보툴리눔 독신) 시장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토종 보톡스의 원조격인 ‘메디톡신’이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사이, 대형 제약사인 종근당이 1000억원 규모 국내 보톡스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메디톡신이 공략하던 해외 시장까지 선점 경쟁이 번지고 있어, 누가 먼저 승기를 잡을지 관심이 모인다.

◆종근당, 새로운 대항마 될까

5월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일로 예정됐던 ‘메디톡신주’에 대한 허가 취소 청문회 일정을 연기했다. 청문 주재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 변경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는 품목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전 회사측에 마지막 소명기회를



종근당 원더톡스

주는 자리다. 다음 청문회 날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서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 원액정보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제조, 판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제제는 메디톡신과 1위를 다투던 휴젤의 ‘보툴렉스’다. 휴젤은 지난해 보툴리

눔 독신 매출 6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4% 성장세를 나타냈다. 보톡스 내수 시장 42%를 차지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보툴렉스의 점유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투자증권 진흥국 연구원은 “휴젤과 메디톡스는 국내 독신 시장의 약 85%를 양분하고 있다”며 “메디톡신의 허가가 취소될 경우 휴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대형 제약사인 종근당도 보톡스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새로운 대항마로 떠올랐다. 종근당은 지난 1일 ‘원더톡스’를 출시하고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더톡스는 보툴리눔 독신 A형 제품으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해 근육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종근당은 지난 10년간 휴젤의 보톡스 제품을 공동 판매하며 미용

성형 시장에서 경험을 쌓아오다, 보톡스 시장에 직접 뛰어 들었다.

종근당 관계자는 “국내 보툴리눔 독신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크다”며 “원더톡스 출시로 미용성형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미용성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다 건너 가열된 ‘전쟁’

메디톡신이 공략하던 해외 시장도 선점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휴온스글로벌은 4일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 의약품평가센터(CDE)로부터 보툴리눔 독신 ‘휴톡스(국내명: 리스톡스)’의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3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휴젤의 보툴렉스 역시 지난 4월9일 중국의 허가 심사를 마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는 이르면 다음달 보툴렉스의 중국 허가를 받고, 하반기 중국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메디톡신은 현재 중국 진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변수가 될 것이라 우려를 받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응제약이 벌이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도 관심이 모인다. 대응제약의 보톡스 제제 ‘나보타’가 메디톡신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으로 시작된 이 소송은 오는 6월 ITC의 예비 판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앞날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만큼, 메디톡신의 시장 퇴출 여부가 대응제약의 미국 시장 선점에 미칠 영향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FDA, 코로나치료제로 렘데시비르 사용승인

코로나 중증 입원환자에 치료 국한 국내 환자 대상 임상3상 진행중 유사시 특례수입 절차 등 대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FDA는 1일(현지시간)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와 전세계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중대본과 FDA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호흡 장애로 인공호흡기 등을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에 한해 긴급 사용승인을 받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렘데시비르는 정식 사용승인은 아니며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 중에서도 중증의 환자, 특정해서 산소포화도가 94% 이하이면서 산소를 흡입하거나 또는 기계적 호흡, 심지어 에크모 등 그렇게 중증의 환자인 성인과 아동에 대한 치료로 국한이 돼서 일단 긴급사용이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렘데시비르의 사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렘데시비르에 대한 3건의 임상을 긴급 승인했으며, 현재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3상이 국내에서도 진행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약사법 제85조의 특례수입 조항에 따라 식약처는 품목허가나 품목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조 허가와 수입 허가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태다.

권 부본부장은 “관계당국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전문가들과 논의 통해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국내에 유사시 특례수입 절차의 빠른 진행 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경계는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렘데시비르에 대한 사망률과 관련해서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렘데시비르가 FDA 기관에서 긴급사용승인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저희 방역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타마유라 프라이빗 룸

JW 메리어트호텔 프라이빗 식사 최적화 ‘타마유라’

패밀리 런치·디너세트 선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2층에 위치한 최고급 일식당 타마유라(Tamayura)에서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패밀리 런치 & 디너 세트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신선한 제철 식재료 본질의 맛을 살린 일본 정통 가이세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타마유라는, 인원수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 가능한 7개의 프라이빗 룸과 8석의 스시 카운터, 8석의 데판야키 스테이션, 6석의 티 바 등 소규모로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됐다.

총 6코스로 구성된 이번 패밀리 세트 메뉴는, 제철 채소와 식자재를 사용해

날마다 다르게 만들어지는 ‘오늘의 전채 요리’를 시작으로, 신선하게 입맛을 돋우는 ‘제철 생선회 5종(디너에만 제공)’, 다양한 종류의 제철 채소와 탱글 탱글한 새우를 바삭바삭하게 튀긴 ‘모듬 튀김’, 살짝 익힌 숙주와, 버섯, 마늘, 아스파라거스 등의 구운 야채가 곁들여진 ‘US 립 아이 스테이크’가 제공된다.

식사메뉴로는 육질이 단단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도미로 만든 ‘도미 조림’과 함께 윤기와 감칠 맛이 일품인 일본의 최고급 쌀 츄야히메 품종으로 지은 술밥이 제공된다. 디저트로는 타마유라의 사토 히로히토 셰프가 계절의 감성을 가득 담아 직접 수제로 만든 ‘화과자와 아이스크림’ ‘와인 젤리를 곁들인 과일’과 샌차가 준비된다.

/조효정 기자

라네즈 ‘워터뱅크’로 피부갈증 해소

프리미엄수분 기능성 브랜드 라네즈가 ‘Thirst for Life(갈증은 우리를 빛나게 하니까)’ 캠페인 일환으로 수분에센스 ‘워터뱅크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라네즈 ‘Thirst for Life’ 캠페인은 스스로 가능성을 찾고 꿈꾸게 하는 원동력인 ‘갈증’을 통해 더욱 빛나는 삶을 응원하는 캠페인으로, 강력한 수분의 힘을 가진 라네즈 워터뱅크와 함께 피부의 갈증을 회복하고 삶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워터뱅크 리미티드 에디션’은 ‘워터뱅크 하이드로 에센스’와 ‘워터뱅크 하이드로 크림 이엑스’로 구성됐다. 라네즈가 추구하는 루미너스 뷰티를 제품 디자인에 담아 수분과 빛의 조합으로 보이는 강렬하고 새로운 느낌을 선사한다. 특히, 워터뱅크 에센스는 수분을 형성화한 잠상식이



라네즈 워터뱅크 리미티드 에디션

그 특별함을 더한다.

라네즈 ‘워터뱅크 하이드로 에센스’는 라네즈만의 기술인 하이드로-라이트닝을 바탕으로 피부의 다양한 갈증을 해소하는 수분에센스다.

/조효정 기자

헤라 도톰한 입술 ‘누드 볼륨매트’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뷰티 브랜드 헤라가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라인의 신제품,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매트’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헤라는 올해 초, 입술의 선과 결을 살리면서 맑은 컬러로 도톰한 입술을 연출해주는 ‘MLBB(My Lips But Bolder)’ 콘셉트의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라인을 선보였다. 해당 라인은 출시 이후 대표 색상이 계속 품절되는 등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라인의 인기에 힘입어 이번에 새로 출시한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매트’는 매트한 제형으로 향신료에서 영감을 얻은 8가지 컬러로 구성되었다. 아모레퍼시픽만의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타고난 듯 자극적이고 도톰한 입술을 연출해주는 플럼핑 기능이 특징이다.

/조효정 기자

와이드앵글, 5월 한달간 ‘감사의 달’ 이벤트

와이드앵글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감사의 달’ 이벤트를 진행한다

와이드앵글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백화점 및 대리점(아울렛 포함)에서 20만 원 이상 구매한 멤버십 고객에게 골프공 하프 dozen(6구)을 선착순 무료 증정한다.

10, 20, 30, 40, 50만 원 이상 구매한 멤버십 고객에게는 1만, 2만, 3만 원, 4

만 원, 5만 원 바우처를 각각 증정한다. 푸짐한 할인 이벤트도 마련됐다. 와이드앵글은 5월 한 달간 전국 와이드앵글 대리점에서 2020년 S/S 제품 중 상하의 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5월 17일까지는 일부 지정 제품 중에서 두 벌 이상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30% 특별할인율을 적용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